

숙종 전교(肅宗 傳敎)

17세기_미상(未詳)_40.0×160.0cm



조선중기부터 사액서원에 소속된 노비는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의 양민이 서원의 노비로 신분을 위장하여 면제받으려고 하는 폐단이 만연하였다. 따라서 군정(軍政)이 문란해지고 병역충당이 어려워 1635(인조13)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서원 노비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를 철폐하게 되었으나, 1676(숙종2)년 권유(權愈, 1633~1704)가 영남지방을 돌아보고 문묘(文廟)에 모신 선현을 향사하는 서원의 노비는 병역면제 제도를 부활하자고 건의하여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에는 차질이 있어 1690년(숙종16)다시 시행하도록 하는 촉구하는 전교(傳敎)를 판에 새겨서 걸었다. 이것은 병역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서원 임을 후세에 알릴 서원운영에 착오 없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傳敎

丙辰十(一)月初十日夜對時 同副承旨權所啓 臣奉命嶺南回還之時 過禮安陶山書院 卽先正臣文純公李某藏修之所也 宣廟朝既給奴婢 又給一店以爲永久守護之地 而一道多士之所聚會 猶不足以支給 又募人民 得以給使用而供多士矣 頃以重臣建白 諸書院募入者 搜出以充關伍之 故募入人等 皆懷渙散之計 將無以守護云 書院募入 誠不無其弊 搜出之舉 出於不得已 而至若文廟從祀諸賢 則有功百世 建立書院 實出於右文興道之意 設有些弊端 有不足爲念者 且禮安有高麗祭酒禹某書院 而此乃先正臣李某所創建者也 如此書院 則事易勿令搜出 其募入人民 俾無渙散之弊 以爲士子聚會講習之所 實合於聖朝儒化之道 而足爲豈勤士林之一助矣 從祀諸賢平生所經過處 皆立書院 雖不可一一皆用特典 而若禮安之陶山書院 慶州之玉山書院 玄風之道東書院 安陰之龍門書院 楊州之道寧書院 延日之烏川書院 則曾所募入者 仍存勿侵似當矣

上曰令該曹稟處 庚午七月初三日 大臣引見入侍時 右贊成沈曰 啓內

上曰書院所屬 還爲出給事 曾已傳敎而尙不出給事 甚無據 卽爲出給可也事 允下

전교

병진년 11월 10일 야대(夜對) 시에 동부승지(同副承旨) 권 모(權謀)가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어 영남에서 돌아올 때,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을 방문하였으니, 바로 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이 모(李某)께서 장수(藏修)하시던 곳입니다. 선묘조(宣廟朝)에 이미 노비를 내려주셨고, 또 한 집을 내려주어서 영구히 수호할 바탕으로 삼았는데, 한 도의 선비들이 모이게 되어 오히려 지급(支給)하기 부족하여 또 백성들을 모집하여 사용에 공급하고 선비들에게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지난번 충신이 아뢰어 여러 서원에서 모입(募入)한 것을 찾아내어 궤오(關伍)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입한 사람들이 모두 환산(煥散)할 계획을 품어 장차 지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원에서 모입하는 것은 진실로 그 폐단이 없지 않고, 찾아내는 일은 부득이한데서 나왔지만, 문묘에 종사한 제현들 같은 경우에는 백세에 공이 있으니, 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실로 문을 숭상하고 도를 흥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설령 사소한 폐단의 실마리가 있다하더라도 엄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예안에는 고려 채주[祭酒] 우 모(禹某) 서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선정신(先正臣) 이 모(李某)가 창건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서원은 일을 바꾸어 찾아내지 않도록 하고, 모입한 인민은 흩어져 가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 선비들이 모여서 강습하는 곳으로 삼게 하시면 실로 성조(聖朝)에서 유교로 교화하는 도에 합할 것이고 족히 사람을 융동시키는데 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사된 제현들이 평소 지냈던 곳에 모두 서원을 세웠으니, 비록 일일이 모두 특전(特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예안의 도사서원,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현풍의 도동서원(道東書院), 안음의 용문서원(龍門書院), 양주의 도봉서원(道峯書院), 연일의 오천서원(烏川書院) 같은 경우는 일찍이 모입한 것은 그대로 두어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해조(該奏)에 물어 처리하게 하라고 하셨다. 경오년 7월 3일 대신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찬성(右贊成) 심 모(沈)가 회계(回啓)하여 들이자, 임금께서, “서원에 소속된 것을 도로 출급하라는 일은 일찍이 이미 전교를 내렸는데 아직도 출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근거가 없다. 즉시 출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은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承政院日記』 257冊, 肅宗 2年 11月 13日 辛卯에 수록되어 있으나 문장의 출입이 있다.